집중취재 상

법무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은상 수상

집중취재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 방문

현장통신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전시 참가
보복범죄 차단,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현장통신

2024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AI 시대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의 미래

현장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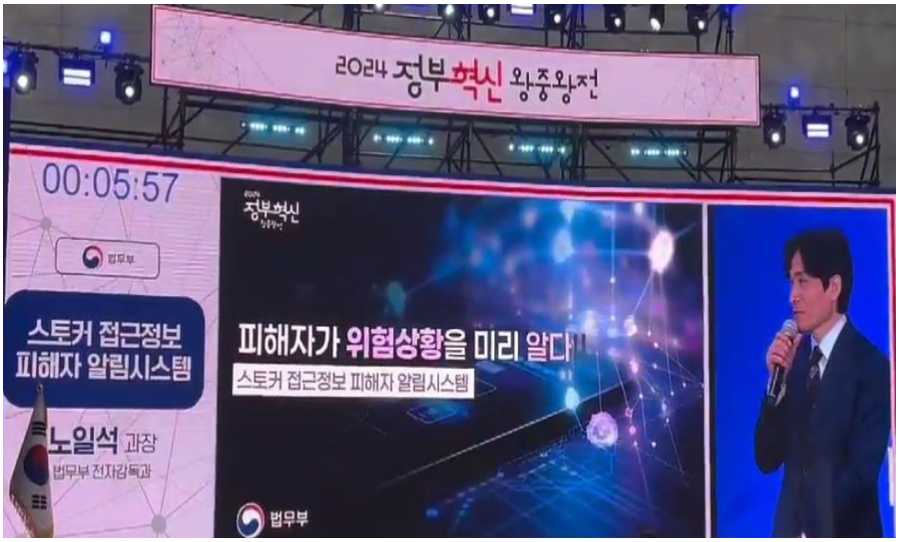
내일을 향한 행복한 동행
다문화청소년과 함께한 12일, 84시간의 여정

아름다운 동행

부산오륜학교 제과반 F4, 내가 제일 잘 나가!
짧은 훈련시간에 심화된 제과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집중취재

법무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은상 수상
-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



법무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사례로 은상(국무총리 표창, 부상 35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범정부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행안부 주관의 대회로, 정부혁신 성과를 공유·홍보함으로써 정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행사입니다.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사례 발표
법무부 전자감독과장(노일석)은 2024년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사례를 발표하여 혁신성과를 국민께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이란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스토커의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문자전송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도 통지되어 즉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된 이후 지난 11개월 동안 피해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은상 수상
총 13개 우수사례 발표를 마친 후 전문가와 국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 결과, 법무부는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사례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은상(국무총리 표창, 부상 35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집중취재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20일 범죄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자,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경기도 안양시 '힐링팜'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치유와 배상이 함께하는 힐링팜

힐링팜은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한 토지에 안양농협이 씨앗과 모종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사회봉사대상자의 노동력으로 밭을 일구고 관리하며, 범죄피해자 가족들이 농작물 파종과 수확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작은 농장입니다.

풍성하게 자란 배추와 무를 수확하고 김장김치를 담구어 온정을 전달

장관은 힐링팜 현장을 방문한 범죄피해자 가족, 안양시장,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안양보호관찰소장, 안양시농협지부장,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자원봉사자 등 총 60여 명과 함께 배추와 무를 수확하고 김장 김치 담그기에도 참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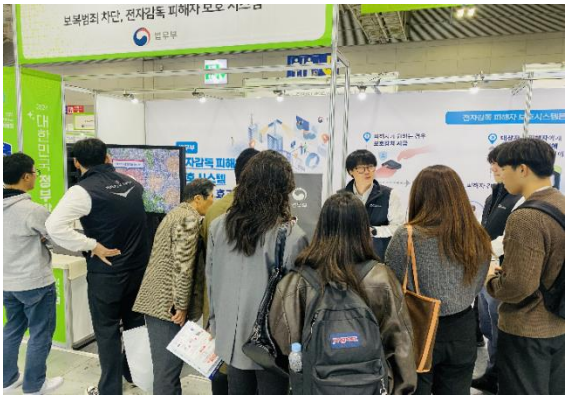
또한, 이날 수확한 배추와 무, 담근 김치는 범죄피해자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전달되는데, 장관은 범죄피해자 가정 두 곳을 직접 방문하여 담근 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봉사의 참의미를 새기는 뜻깊은 시간

장관은 불의의 범죄로 정신적·신체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길 바란다며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이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게 하고, 처벌과 교육적 효과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며 당부하였습니다.

현장통신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전시 참가
- 보복범죄 차단,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법무부는 2024년 11월 13일(수)부터 11월 15일(금)까지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행사에 참가하여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원리 소개
전시 부스 현장을 찾아준 국민들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 듣고 가상의 스토킹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직접 문자를 전송받고 피해자 보호 조치 받는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체험
또한,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 실물을 관람하고 직접 착용하는 체험을 해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전자감독 제도 홍보
아울러 국민들이 부스 내 포토존에서 신속수사팀 제복과 현장 출동 방검복을 입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거나 홍보 영상도 시청하는 등 전자감독제도와 친근하고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통신

2024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AI시대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의 미래-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4. 11. 15.(금) 13:30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시대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 발표(동국대 이창한 교수, 한경대 임석순 교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창한 교수는 '보호관찰 현장에서 과학기술의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스마트 보호관찰의 이론적 배경, 보호관찰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스마트 보호관찰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 AI시대에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고,
한경대학교 법학과 임석순 교수는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형사정책 시론'을 주제로 딥페이크의 개념, 딥페이크의 순기능과 역기능, 현행법상 딥페이크 합성물에 관한 처벌규정 및 한계 등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을 발표했습니다.

개회사(한국보호관찰학회 홍영오 회장)
한국보호관찰학회 홍영오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AI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함께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AI시대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보호관찰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나누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써 유관 학회와의 공동 연구, 학술행사 등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최된 학술대회가 IT기술과 접목된 보호관찰의 미래를 준비하고 온라인 범죄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학계의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들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장통신

내일을 향한 행복한 동행
-다문화청소년과 함께 한 12일, 84시간의 여정-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지역은 다문화 거리, 다문화 마을, 다문화 축제 등 문화, 생활공간이 잘 갖춰져 있어 다문화가족이 살기를 선호하는 대표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점은 다문화가족이 늘수록 비행에 연루된 다문화청소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가정법원이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안산센터)에 교육을 위탁한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은 2024년 들어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12)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가장 곤란한 점은 언어적 제약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어권 청소년의 대부분은 한국어와 한글 사용이 미숙합니다.
일정한 집단을 구성하여 구성원 서로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의 감정, 사고를 교환하고 점검함으로써 바람직한 대안을 형성해가는 교육과정을 다문화청소년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랜시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의 구성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번역을 교육과정에 활용한 안산센터의 특별한 교육과정이 2024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떼꼴'을 아시나요?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다문화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는 그들만의 공간을 말합니다. 언어적 제약이 있는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이해하기 힘들어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고 미흡한 수업참여로 교사와의 갈등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로 급우들과의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힘들고 위험해 우리 국민들이 기피하는 직업에 종사하다 다치고,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느라 생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 탓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는 다문화청소년의 보호자는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교교사와 또래 급우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다문화청소년은 '떼꼴'에 모여 그들만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공간 속에서 유흥을 즐기고 절도, 폭력비행을 포함한 다양한 일탈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한국어를 못해도 한글이 서툴러도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을 향한 행복한 동행'
안산센터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의 도움을 받아 센터를 소개하고 교육생이 지켜야할 사항들, 교통편과 약도 등이 포함된 안내문과 강의안 등 교육자료를 러시아어로 번역했습니다. (자료 3,4,5)
또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과 교육 경험이 있고 다문화청소년의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홍성보 선생님과 함께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활동형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언어적 제약으로 한국사회에서 위축되고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꿈과 희망보다 현재의 일탈에 골몰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심리정서교육, 대인관계교육, 진로교육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했습니다.(자료3)
또한, 청소년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조교사로 통역인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세분의 통역 선생님은 언어적 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센터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내 삶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이제 나쁜 버릇 고치고 한국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3개월, 그 중에서 12일, 84시간. 고개를 수그린 채 눈 맞춤을 힘들어하고 조금은 낯설었던 7명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안산센터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11월 어느 날, 마지막 친구 김oo크
센터의 출입문을 열고 집으로 향하던 그가 갑자기 되돌아와 와락 안기며 서툰 한국어로 남긴 말, “선생님 고마워요, 이제 약속할게요!”

그동안 우리는 다름이 아닌 작은 차이에도 ’외모가 이상하잖아,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 우리와는 너무 달라‘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3개월여 지속된 여정을 통해 센터 직원들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교육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행복한 동행!
안산센터는 2025년에도 다문화청소년과 함께하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앞으로도 쭉~~~

아름다운 동행

부산오륜학교 제과반 F4, 내가 제일 잘나가!
-짧은 훈련시간으로 심화된 제과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야기-

선물

오륜의 F4 민준, 준호, 진수, 호진(가명)은 평소와 같이 제과반 실습장에서 열심히 빵 만들기 실습을 하고 있었다. 직업훈련 교사 정화수 선생님(이하 '정화수 선생님')이 선물을 가져 왔다고 하며 넷을 오륜카페로 불렀다. F4는 선물이라는 말에 잔뜩 기대를 하고 오륜카페에 모였으나 정화수 선생님의 말에 실망하였다. 정화수 선생님이 어려운 제과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맛있는 것을 주는 줄 알았는데..., 제과산업기사는 뭐람?, 귀찮게 되었네... F4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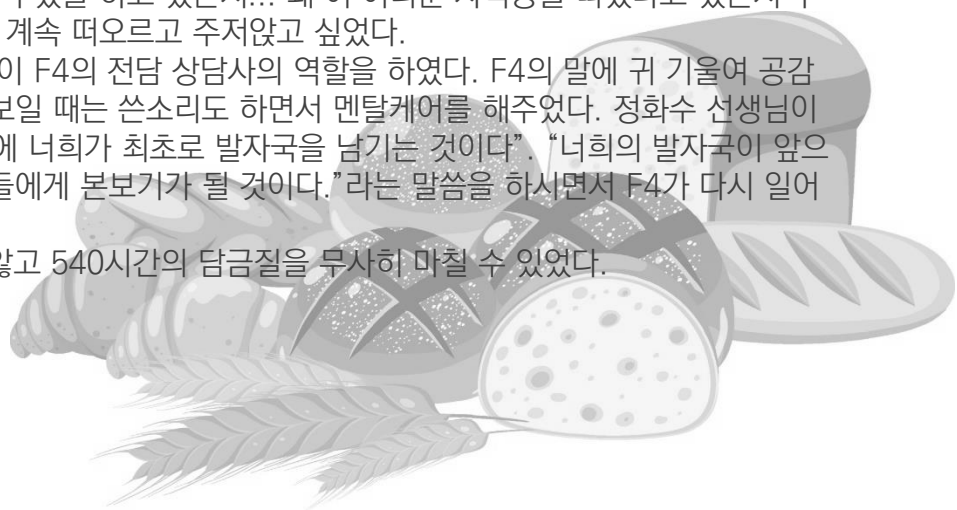
정화수 선생님은 평소 실습장에서 열심히 실습을 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재능이 있어 보여 넷을 부른 것이였다. 시큰둥한 반응에 아무나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님을 설명하고 "한 번 도전해보자!"라고 말하였다. 4F가 제과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며칠이 지나 4명 모두 "선생님 한 번 해볼께요.!"라는 의지를 보였을 때 감동이었다. 요즘 학생들은 도전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기특하였다. 정화수 선생님도 F4에게 제과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마찬가지로 감동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다.

540시간의 담금질

F4는 본격적으로 2024년 3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교육훈련에 임하였다. F4는 처음에 과연 이 어려운 과정을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남잔데 할 수 있다. 도전해서 꼭 따보자는 마음이 반반이었다. 교육훈련이 진행되면 될수록 어렵고 지쳐갔다. 빵을 만드는데 왜 계산공식이 나와서 나의 앞길을 막는 것인지.... 다른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강당에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우리는 무었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어려운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는지 후회되었다. 포기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고 주저앉고 싶었다.

이럴 때마다 정화수 선생님이 F4의 전담 상담사의 역할을 하였다. F4의 말에 귀 기울여 공감을 해주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는 쓴소리도 하면서 멘탈케어를 해주었다. 정화수 선생님이 "아무도 가지 않은 흰 눈밭에 너희가 최초로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너희의 발자국이 앞으로 이 과정을 하게 될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F4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

F4 모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540시간의 담금질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담금질의 결과

F4는 시험 당일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였다. 민준은 연습했던 것처럼 순조롭게 차근차근 시험은 보았다. 그런데 모카쉬퐁케이크 공정과정에서 머랭을 너무 오래 돌려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아 당황하였다. 다음 과정이 진행되지 않아 불합격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 실수를 연속해서 하였다. 정화수 선생님이 지켜보시다 "포기지마! 아직 끝난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을 잡고 다음 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준호는 5시간 동안 빵만 보고, 만들고, 치우다 보니 너무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오븐을 활용해서 빵을 굽는 동안 빵이 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밥을 먹지 않고 물배를 채우며 빵 굽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았다. 다행히 빵을 태우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진수는 이제까지 연습한 것을 '후회 없이 보여주자'라는 마음을 먹고 시험을 보았다. 연습을 하고 또 하였으니 시험에서 작은 실수가 많았다. '감점은 많이 받았겠구나, 망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시험을 보았는지도 모르게 5시간이 흘러갔다. 호진은 성실하게 묵묵하게 시험을 연습했던 것이 도움이 되어 시험을 치는 시간 동안 실수를 많이 했다 생각했지만, 본인의 연습의 양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무사히 마쳤다.

꿈

제과산업기사 합격자 발표날이 되었다. 시험을 볼 때 실수를 많이해서 그런지 기대 반 걱정 반인 얼굴이다. 합격자 명단을 보며 F4가 환호하였다. 로또에 당첨된 것 마냥 합격자 명단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다들 기뻐하며 한마디씩 하였다.

민준은... 돌아보니 제과산업기사 준비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짜증 나는 일 화나는 일 모두 겪으며 끝내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때의 성취감이 말도 안되게 좋았습니다.

준호는... 퇴원 후 제과 관련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나중에 저 혼자만의 가게를 창업할 것입니다. 제과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진수는... 제과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전문대학교 3곳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과 분야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것이며 7년간 경력을 쌓고 기능장 시험에 도전하겠습니다. 이후 기능장 시험에 합격 후 직업훈련 교사로 소년원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호진은... 퇴원 후 제과점 취업을 하여 저의 실력을 발휘하여 맛있는 빵을 만들겠습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어 꼭! 소년원에 찾아오겠습니다.

F4 일동... 제과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도와주신 정화수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정화수 선생님은...

10년 전 오륜학교에서 학생들을 마주한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어둡고 마음을 숨기는 눈빛이 마음속 깊이 남아있다. 학생들이 퇴원 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다 제과산업기사 자격제도의 시행을 접하였다. 어둡고 빛을 잃은 아이들에게 성취동기를 심어주고 사회에 있는 다른 일반인보다 취업경쟁력있는 산업인으로 양성하고 싶은 작은 나의 희망을 제과제빵반 학생들이 믿어주었다.

퇴원 후에도 사회에 필요한 사회구성원으로 뿌리 내리는 모습을 희망한다.

얘들아, 선생님을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해주어 고맙구나. 항상 응원한다.

부산오륜학교 제과반 F4 너희들이 제일 잘나가!